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10 [22~25]

이때에 호국 강변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용이요 명은 훈이니, 대대로 명가(名家)의 자손이라. 본래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강호에 놀기와 등산에 발 갈기를 일삼으나, 다만 슬하에 자식 없음을 부부 매일 한탄하기를 마지아니하더니, 일일은 용훈이 양친 탄 왈,

“대대로 무후(無後)치 아니하더니, 내게 와서 후사가 끊일 줄을 어찌 알리오.”

하며 자탄함을 마지아니하거늘, 부인 관 씨 대 왈,

“불효 삼천에 무후한 죄 크다 하오니, 옛법으로 의논컨대 첩을 내침 직하오나 군자의 후하신 덕을 깊이 생각하와 지금 존문에 의탁하였으나, 봄날에 살얼음판을 디딘 듯하와 어찌 마음이 안연하리이까. 잠깐 듣사오니 태항산 천축사라는 절에 올라가오면 삼불이 극히 영험하시다 하오니, 고단함을 생각지 마시고 첩으로 더불어 정성으로 발원코자 하나이다.”

용훈이 왈,

“빌어 자식을 낳을진대 천하에 무자(無子)한 자가 뉘 있으리까. 그러하오나 한스러운 인생이오니 세존에게 정성으로 발원하여 보사이다.”

하고, 즉시 태항산 천축사에 올라가 전조 단발하고 삼칠일 목욕계 후에 불전에 공양 축원하며 반년이나 지내니 외려 산속의 절에서 불도를 닦는 독실한 속인이겠더라.

일일은 부인 관 씨 일몽(一夢)을 얻으니, 동해에서 동자 일인이 올라와 부인에게 세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는 천상 삼십삼천 도인도 차지하옵는 신장(神將)이옵더니, 옥황의 명을 받자와 ‘홍해국 태자를 베라’ 하교하시매 그 명을 받들었지만, ‘정말 가서 베고 왔는지 믿지 못하겠다’하시고 세상에 내치시매 갈 바를 아지 못하옵더니, 마침 천축사 세존께옵서 ‘부인에게 의탁하라’ 하시오매 왔사오니, 부인은 어찌뵈여기소서.”

하거늘, 부인이 반가이 여겨 품 안에 안다가 깨니 남가일몽이라. 즉시 용훈을 깨워 몽사를 여쭙오니, 용훈이 크게 기뻐 즉시 집으로 내려와 생남(生男)하기를 바라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칠 삭 만에 생남하매, 용의 기상이요, 범의 머리며 곰의 등이요, 용의 허리며 잔나비의 팔이라. 소리 웅장하여 큰북 소리 같고, 비록 강보에 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빨이 두 줄로 박히고 앞니가 밖으로 한 치나 내밀었으니, 훈이 크게 기뻐 왈,

“이 아이 기상을 보오니 옛날 명인의 풍도를 간직하였으매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하고 이름을 문이라 하고 자는 벽력이라 하였다.

(중략)

연화 도사 왈,

“이 아이 상을 보니 반드시 귀인이 될 것이니, 부자 정리에 떠나보내기 애달프겠지만 천명을 어기지 말고 노인에게 맡기시면 장래 귀히 되리이다.”

훈이 다시 일어나 절하고 여쭙오되,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선생께옵서 귀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며 즉시 용문을 허락하거늘, 도사 용문을 데리고 ㉠연화산에 들어가 천문 지리, 육도삼략과 황석공의 방법을 팔 년을 가르치니,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지간 영웅 준걸이라.

도사 왈,

“이제는 슬법을 배웠으니 대업을 이룰지라. 빨리 돌아가 빛난 재주를 세상에 베풀고 어진 성군을 만나 웅장한 이름을 천추에 전하도록 하라. 성군을 만나지 못할진대 너의 선생을 용납하게 말라.”

하니 용문이 두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 팔 년을 선생 문하에 머물러 높은 재주를 배웠사오니, 어찌 선생의 교훈을 일분이나 어기리이까.”

하고 하직을 아뢰니 도사 왈,

“부디 좋은 때를 잃지 말라.”

하시더라.

용문이 산문 밖에 나와 부모께 뵈오니, 부모가 크게 기뻐 팔 년 그리던 정을 못내 애연하더라. 인하여 용문이 선생 말씀을 날 날이 여쭙니, 용훈의 부부 연화 도사를 향하여 은혜를 못내 칭찬하더라.

용문이 일일은 ㉡강변에 나아가 명량한 달빛을 따라 배회하더니, 먼 데서 크게 불러 왈,

“내 말이 사나와 내 자식을 물어 죽이고 강을 건넜으니, 그 말을 잡아 주면 은혜를 갚으리라.”

하거늘, 용문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과연 말이 강변에 섰으되, 높기는 칠 척이요 눈은 방울 같고 몸이 불빛 같더니 진실로 적토마라. 용문이 크게 기뻐하거늘,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말을 장군께 드리러 왔나이다. 이 말은 능히 운무를 따르며 한번 채치면 능행만리하고 한번 소리를 한즉 태산과 하해가 뒤놓는 듯하니, 마땅히 장군의 재주를 베풀지라.”

하고 말을 마치며 문득 간 데 없거늘, 심중에 크게 기뻐 즉시 말에 올라 시험할새 적토마 한번 소리하며 네 굵을 놀리니, 빠르기 살과 나는 제비라도 미치지 못할리라. ㉢한곳에 다다르니 층암절벽상에 한 동자가 머리에 벽도관을 쓰고, 몸에 청룡포를 입고 암상(巖上)으로 내려와 읊하여 왈,

“소자는 천상 옥황상제의 명을 받자와 전장 기계(戰場器械)를 장군에게 전하나이다. 차후에 은혜를 잊지 말으소서.”

하고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용문이 괴이히 여겨 동자가 섰던 곳으로 나아가 보니, 석함(石函)이 놓여 있오되 광채 찬란하고 전면에 금자로 새겼으되,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 친집게탁하라’ 하였거늘, 용문이 생각하되, ‘우리 대대로 호국 사람인데 석함에 명국 대사마 장군이라 하였으니, 유유한 천의를 알지 못하거니와 호국 왕상이 천의를 범코자 하기로, 하늘이 나를 호국을 배반하고 명국에 돌아가 대장이 되게 하온 일인가, 명국을 내 함몰하고 통합하게 하온 일인지 장래를 보자.’ 하고 강을 향하여 사례하고, 갑주를 갖추고 용친검을 들며 말에 올라 산하에 내려와 청수강을 바라보며 말을 채쳐 재주를 시험하니, 적토마가 한번 솟으며 소리하니 천지가 무너지는 듯하며 검광은 일월을 희롱하는지라.

- 작자 미상, 「용문전」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2.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문은 호국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호국의 명가이다.
- ② 용훈은 본디 입신양명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 ③ 용훈 부부는 용문의 말을 듣고 연화 도사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꼈다.
- ④ 용훈 부부는 태항산 천축사에 머물며 반년 동안 삼불에게 발원 하였다.
- ⑤ 신장은 옥황상제의 명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3. <보기>를 읽고 윗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장치들이 활용된다. 가령 꿈을 통해 주인공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거나 특이한 외양을 타고나도록 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신물을 전해 주거나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 ① 관 씨의 태몽을 통해 용문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갓 태어난 용문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용문의 영웅성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육도삼락과 병법 등을 용문에게 가르치는 연화 도사를 등장시켜 용문이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④ 적토마를 전달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용문이 천상계 인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군.
- ⑤ 벽도관을 쓴 동자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용문에게 전장 기계를 전달해 용문이 영웅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군.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화 도사에게 훈육을 간청하기 위해 용훈은 용문을 데리고 ㉠에 들어갔다.
- ②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관심을 끈 후 용문을 찾아온 의도를 밝혔다.
- ③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은혜에 감사하며 석함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용문은 ㉣에서 호국을 버리고 명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 하고 있다.
- ⑤ ㉡은 용문이 현실에서 노니는 공간이고, ㉢은 꿈속에서 체험한 공간이다.

<보 기>

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장치들이 활용된다. 가령 꿈을 통해 주인공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거나 특이한 외양을 타고나도록 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신물을 전해 주거나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 읽기 전 활동

영웅 소설에서 활용되는 서사적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꿈을 통해 주인공의 고귀한 혈통을 알려주거나, 특이한 외양을 타고나게 해 주인공이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하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은 대체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신물을 전해 받거나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 또한 알고 넘어간다면 글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호국 강변에 한 사람이 있으며, 성은 용이요 명은 훈이니, 대대로 명가(名家)의 자손이다. 본래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강호에 놀기와 동산에 밭 갈기를 일삼으나, 다만 슬하에 자식 없음을 부부 매일 한탄하기를 마지아니하더니, 일일은 용훈이 양친 탄 왈,

“대대로 무후(無後)치 아니하더니, 내게 와서 후사가 끊일 줄을 어찌 알리오.”

하며 자탄함을 마지아니하거늘, 부인 관 씨 대 왈,

“불효 삼천에 무후한 죄 크다 하오니, 옛법으로 의논컨대 첩을 내침 직하오나 군자의 후하신 덕을 깊이 생각하와 지금 존문에 의탁하였으나, 봄날에 살얼음판을 디딘 듯하와 어찌 마음이 안연하리이까. 잠깐 듣사오니 태항산 천축사라는 절에 올라가오면 삼불이 극히 영험하시다 하오니, 고단함을 생각지 마시고 첩으로 더불어 정성으로 발원코자 하나이다.”

용훈이 왈,

“빌어 자식을 낳을진대 천하에 무자(無子)한 자가 뉘 있으리까. 그러하오나 한스러운 인생이오니 세존에게 정성으로 발원하여 보사이다.”

하고, 즉시 태항산 천축사에 올라가 전조 단발하고 삼칠일 목욕재계 후에 불전에 공양 축원하며 반년이나 지내니 외려 산속의 절에서 불도를 닦는 독실한 속인이겠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용훈’이 자식이 없어 고민하다가 부인의 제안으로 태항산 천축사에 가서 자식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웅소설에서 드러나는 영웅 탄생 비화로, 절이나 속세에서 떨어진 신비한 공간에서 부처와 같은 영험한 존재에게 빌어 태어난 영웅은 뛰어난 능력과 기이한 인연을 맺는 개연성을 얻게 됩니다. 대체로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영웅의 부모가 간절한 기원을 통해 아이를 얻게 된다는 점을 알고 이후 이야기를 예상하면서 읽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일일은 부인 관 씨 일몽(一夢)을 얻으니, 동해에서 동자 일인이 올라와 부인에게 세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는 천상 삼십삼천 도인도 차지하옵는 신장(神將)이옵더니, 옥황의 명을 받자와 ‘홍해국 태자를 베라’ 하교하시며 그 명을 받들었지만, ‘정말 가서 베고 왔는지 믿지 못하겠다’ 하시고 세상에 내치시매 갈 바를 아지 못하옵더니, 마침 천축사 세존께옵서 ‘부인에게 의탁하라’ 하시오매 왔사오니, 부인은 어여뵈여기소서.”

하거늘, 부인이 반가이 여겨 품 안에 안다가 깨니 남가일몽이다. 즉시 용훈을 깨워 몽사를 여쭙으니, 용훈이 크게 기뻐 즉시 집으로 내려와 생남(生男)하기를 바라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칠 삭 만에 생남하매, 용의 기상이요, 범의 머리며 꿈의 등이요, 용의 허리며 잔나비의 팔이라. 소리 웅장하여 큰북 소리 같고, 비록 강보에 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빨이 두 줄로 박히고 앞니가 밖으로 한 치나 내뺐었으니, 훈이 크게 기뻐 왈,

“이 아이 기상을 보오니 옛날 명인의 풍도를 간직하였으매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하고 이름을 문이라 하고 자는 벽력이라 하였다.

(중략)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게 진심을 다해 기원한 부인 관 씨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보기>에서 언급했듯 꿈을 통해 ‘천상’의 ‘도인’이 옥황이 자신을 세상에 내쳤기에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고자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공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용의 기상, 범의 별, 꿈의 등, 용의 허리, 잔나비의 팔을 가지고 기골이 장대하며 이빨이 두 줄이라는 외양 묘사에서 <보기>에서 언급한 ‘특이한 외양’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를 보고 용훈은 기뻐하며 이름을 ‘문’이라 짓고 자를 ‘벽력’으로 짓고 있습니다.

연화 도사 왈,

“이 아이 상을 보니 반드시 귀인이 될 것이니, 부자 정리에 떠나보내기 애달프겠지만 천명을 어기지 말고 노인에게 맡기시면 장래 귀히 되리이다.”

훈이 다시 일어나 절하고 여쭙오되,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선생께옵서 귀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며 즉시 용문을 허락하거늘, 도사 용문을 데리고 연화산에 들어가 천문 지리, 육도삼략과 황석공의 병법을 팔 년을 가르치니,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치간 영웅 준걸이라.

도사 왈,

“이제는 술법을 배웠으니 대업을 이룰지라. 빨리 돌아가 빛난 재주를 세상에 베풀고 어진 성군을 만나 웅장한 이름을 천추에 전하도록 하라. 성군을 만나지 못할진대 너의 선생을 용납하게 말라.”

하니 용문이 두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 팔 년을 선생 문하에 머물러 높은 재주를 배웠사오니, 어찌 선생의 교훈을 일부이나 어기리이까.”

하고 하직을 아뢰니 도사 왈,  
“부디 좋은 때를 잃지 말라.”  
하시더라.

용문이 산문 밖에 나와 부모께 뵈오니, 부모가 크게 기뻐 팔 년 그리던 정을 못내 애연하더라. 인하여 용문이 선생 말씀을 날 날이 여쭙니, 용훈의 부부 연화 도사를 향하여 은혜를 못내 칭찬하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중략) 이후에 ‘연화 도사’에 의해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연화 도사의 밑에서 천문 지리, 육도삼략과 황석공의 방법을 배워 지략과 기량을 연마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기>에서 언급했던 ‘조력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문이 이러한 조력자의 도움으로 영웅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갖춘 용문은 도사의 제안으로 능력을 펼치기 위해 하산하게 됩니다. 부모를 다시 만나 재회하며 연화 도사의 말을 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문이 일일은 강변에 나아가 명량한 달빛을 따라 배회하더니, 먼 데서 크게 불려 왈,

“내 말이 사나와 내 자식을 물어 죽이고 강을 건넜으니, 그 말을 잡아 주면 은혜를 갚으리라.”

하거늘, 용문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과연 말이 강변에 섰으며, 높기는 칠 척이요 눈은 방울 같고 몸이 불빛 같더니 진실로 적토마라. 용문이 크게 기뻐하거늘,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말을 장군께 드리러 왔나이다. 이 말은 능히 운무를 따르며 한번 체치면 능행만리하고 한번 소리를 한즉 태산과 하해가 뒤놓는 듯하니, 마땅히 장군의 재주를 베풀지라.”

하고 말을 마치며 문득 간 데 없거늘, 심중에 크게 기뻐 즉시 말에 올라 시험할새 적토마 한번 소리하며 네 굽을 놀리니, 빠르기 살과 나는 제비라도 미치지 못할러라. 한곳에 다다르니 층암절벽상에 한 동자가 머리에 벽도관을 쓰고, 몸에 청룡포를 입고 암상(巖上)으로 내려와 읊하여 왈,

“소자는 천상 옥황상제의 명을 반사와 전장 기계(戰場器械)를 장군에게 전하나이다. 차후에 은혜를 잊지 말소소서.”

하고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용문이 괴이히 여겨 동자가 섰던 곳으로 나아가 보니, 석함(石函)이 놓여 있되 광채 찬란하고 전면에 금자로 새겼으며,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 친집개탁하라’ 하였거늘, 용문이 생각하되, ‘우리 대대로 호국 사람인데 석함에 명국 대사마 장군이라 하였으니, 유유한 천의를 알지 못하거니와 호국 왕상이 천의를 번조자 하기로, 하늘이 나를 호국을 배반하고 명국에 돌아가 대장이 되게 하온 일인가, 명국을 내 함몰하고 통합하게 하온 일인지 장래를 보자.’ 하고 강을 향하여 사례하고, 갑주를 갖추고 용천검을 들며 말에 올라 산하에 내려와 청수강을 바라보며 말을 체쳐 재주를 시험하니, 적토마가 한번 솟으며 소리하니 천지가 무너지는 듯하며 검광은 일월을 희롱

하는지라.

- 작자 미상, 「용문전」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용문이 우연히 강변에서 뛰어난 말을 얻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문은 강변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 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얻게 된 말은 ‘적토마’로써 <보기>에서 언급한 ‘신물’을 전달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죽었다며 말을 잡아 달라고 말한 사람 또한 평범한 사람이 아닌 신비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적토마를 타고 한 곳에 다다르니 신비한 동자가 내려와 ‘전장 기계’를 전해주는 데, 동자가 있던 자리에 놓인 ‘석함’에는 용문이 ‘명국 대사마 장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영웅소설의 전개 방식 중 하나로, 주인공이 미래에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 미리 예언하는 장치를 통해 주인공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치는 주인공인 용문에게 ‘명국에 돌아가 대장’이 될 것인지 ‘명국을 함몰하고 통합’하게 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역할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영웅소설의 기본적 이야기 구성 요건들을 알고 있다면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전 소설의 경우 작품의 전개 방식이 고정적인 경우가 많으니 소설의 기본적인 전개 방식을 익히는 것이 지문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용훈이 ‘내게 와서 후사가 끊길 줄’은 몰랐다면 이야기하고 관 씨가 ‘태항산 천축사’에 올라 기원하여 아이를 얻고자 하는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 서술자가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지간 영웅 준걸이라’며 말하는 부분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용문의 모습을 ‘용의 기상이요, 범의 머리며 꿈의 등이요, 용의 허리며 잔나비의 팔이라.’며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문이 일반인과는 다른 뛰어난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상징적인 소재인 '석함'에 적힌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이라는 글을 통해 용문이 '명국 대사마 장군'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 역사적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 역시 드러나지 않으며,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부분 또한 찾을 수 없습니다. 지문에서 전혀 내용이 등장하지 않은 선지이므로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옳은 선지로 오인해서는 안됩니다.

2.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용문은 호국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호국의 명가이다.

→ 용문은 용훈의 아들입니다. 용훈은 '호국 강변'에 사는 집안으로, '대대로 명가의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용훈은 본디 입신양명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 용훈은 '본래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강호에 놀기와 동산에 밭 갈기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뜻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용훈 부부는 용문의 말을 듣고 연화 도사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꼈다.

→ 용훈 부부는 '용문이 선생 말씀을 날날이 여쭙'자 '도사를 향하여 은혜를 못내 칭찬'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용훈 부부는 태항산 천축사에 머물며 반년 동안 삼불에게 발원하였다.

→ 용훈 부부는 '태항산 천축사'에 '삼불이 극히 영험'하다는 말을 듣고 '반년'간 '공양 축원'하며 지내 용문을 얻게 됩니다.

⑤ 신장은 옥황상제의 명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 신장은 '홍해국 태자를 베라'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들었'지만, 옥황상제는 '정말 가서 베고 왔는지 믿지 못하겠'다며 신장을 세상으로 내치는 벌을 내립니다. 이를 보아 신장은 옥황상제의 명령을 수행했으나, 옥황상제는 이를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읽고 윗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보 기>

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장치들이 활용된다. 가령 꿈을 통해 주인공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거나 특이한 외양을 타고나도록 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신물을 전해 주거나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① 관 씨의 태몽을 통해 용문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고 있군.

→ 관 씨의 태몽에서 '신장'이 등장해 '옥황상제'가 자신을 쫓아내어 '부인'에게 위탁하고자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통해 용문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② 갓 태어난 용문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용문의 영웅성을 암시하고 있군.

→ 갓 태어난 용문의 외양이 '용의 기상이요, 범의 머리며 곰의 등이요, 용의 허리며 잔나비의 팔이라. 소리 웅장하여 큰북 소리 같고, 비록 강보에 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빨이 두 줄로 박히고 앞니가 밖으로 한 치나 내밀었'다며 용문의 외양 묘사를 통해 용문의 영웅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앞니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영웅성을 암시한다는 점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육도삼략과 병법 등을 용문에게 가르치는 연화 도사를 등장시켜 용문이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천문 지리, 육도삼략과 황석공의 병법을 팔 년을 가르치'는 연화 도사를 등장시켜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지간 영웅 준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적토마를 전달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용문이 천상계 인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군.

→ 적토마를 전달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용문이 신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토마를 전달하는 인물은 '이 말을 장군께 드리러 왔'다고 말할 뿐, 용문이 천상계 인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문이 자신이 천상계 인물임을 스스로 깨달았다면 적토마를 전달하는 인물과의 만남 이후 용문이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러한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⑤ 벽도관을 쓴 동자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용문에게 전장 기계를 전달해 용문이 영웅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군.

→ 벽도관을 쓴 동자가 '옥황상제의 명을 반사와 전장 기계를 장군에게 전'한다고 말하는 점에서 용문이 옥황상제의 관심을 받는 영웅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인물이 옥황상제의 관심을 받아 전장에서 쓸 계책을 전달받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쉽게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은 용문이 현실에서 노니는 공간이고, ㉡은 꿈속에서 체험한 공간이다.

→ 강변은 용문이 현실에서 노니는 공간이 맞으나, 동자를 만난 한곳 역시 현실 속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동자를 만났다면 용문이 꿈에서 깨어나는 각몽의 과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각몽의 과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 연화산
- ㉡ 강변
- ㉢ 한곳

① 연화 도사에게 훈육을 간청하기 위해 용훈은 용문을 데리고 ㉠에 들어갔다.

→ 용훈이 훈육을 간청하기 위해 용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연화 도사는 '부자 정리에 떠나보내기 애달프시겠지만 천명을 어기지 말고 노인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통해 연화 도사가 용훈에게 자신이 용문을 가르치겠다고 제안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관심을 끈 후 용문을 찾아온 의도를 밝혔다.

→ 용문이 강변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에게 '내 말이 사나와 내 자식을 물어 죽이고 강을 건넜'다며 '그 말을 잡아 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용문의 관심을 끕니다. 이후 용문이 말을 보고 기뻐하자, '이 말을 장군께 드리러 왔'다며 용문을 찾아온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③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은혜에 감사하며 석함을 전달하고 있다.

→ 용문이 '한 동자'를 만나 석함을 전달받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지만, 동자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전장 기계를 전달하러 왔을 뿐, 용문에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용문에게 오히려 '은혜를 잊지 말라'고 권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용문은 ㉡에서 호국을 버리고 명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용문은 석함을 받은 후 석함에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이라 적힌 글귀를 보고 '나를 호국을 배반하고 명국에 돌아가 대장이 되게 하온 일인가, 명국을 내 함몰하고 통합하게 하온 일인지 장래를 보자'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나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와 호국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지켜보자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